



二代의 꿈이 형글어 간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 에델만 베이커리

실내라고는 하지만 한겨울 날씨에도 아랑곳없이 반팔 셔츠 차림으로 부산하게 공장 안을 오가는 모습이 영락없이 여느 젊은이의 모습이다. 반죽을 하는 틈틈이 오븐 안을 들여다보며 시간을 계측하는가 하면, 또 어느새 훌쩍 진열대 앞에 다가가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에델만 베이커리의 이정범 씨. 1925년생인 그의 나이는 가쁜한 걸음걸이가 무색하게도 올해로 일흔 둘, 부인 김혜순(64) 씨의 말마따나 현직 최고령 기술인이 아닐까 싶게 제과업 경력만도 어언 50년이 넘는 백전노장이자다. 그래서일까. 이정범 씨 옆에 붙어서서 줄곧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는 두 젊은이의 공손함이 예사롭지 않게 느껴진다.

“앞으로 이 에델만의 미래를 짊어질 두 아들들입니다. 내색은 하지 않지만 요즘 젊은 사람답지 않게 일에 열중하는 진득한 성미가 늘 마음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주변에선 인력난이다 뭐다 말들이 많지만 그제 다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부족하기 때문이지요. 자식들에게도 기술을 배우기에 앞서 먼저 직업에 대한 긍지를 가지라고 당부했습니다.”

50여년이란 긴 세월 동안

묵묵히 한 자리를 지켜온 아버지,

그리고 부친의 뜻을 좇아 가업에 뛰어든

두 아들들.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서로의 어깨를 곁과

함께 걸어가는 이들의 모습은

참으로 아늑해 보인다.

에델만 삼부자가 엮어가는 가슴 훈훈한

가족 사랑의 이야기를 찾아가 본다.

아직도 굳이 현직 기술인이기를 고집하는 이정법 씨의 아들 자랑이 아니더라도, 가업을 잇겠다며 제과업에 뛰어들어 두 아들 용규(39), 용수(37) 씨의 열의는 사뭇 진지하기만 하다.

인생의 굴곡에 좌절하지 마라

1987년 대구시 대봉동에서 시작된 에델만의 역사는 이제 10여년. 하지만 4년전 지금의 지산동 범물시장으로 옮겨와 뿌리를 내리기까지 이들 삼부자에게도 ‘구비구비 한 맺힌’ 사연이 많았다.

부친인 이정법 씨가 제과업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해방 되던 해인 1945년으로 훌쩍 거슬러 올라간다. 일본에서 태어나 가족과 함께 귀국길에 오른 그는 당시 공업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꿈많은 공학도였다. 하지만 변변한 기반 시설 하나 없는 건국 초기의 어수선한 사정은 엔지니어를 꿈꾸던 그에게 더 이상 화려한 전망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발을 들여놓게 놓게 된 제과업에서 그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 먹거리라곤 손바닥만한 비탈발을 일궈 수확한 고구마나 감자 따위가 고작이던 시절이라 빵을 만들어 내놓기가 무섭게 팔려나가던 때였다. 비좁은 공장 안에서 종일 구슬땀을 흘리고도 집으로 돌아오는 그의 발걸음은 가볍기만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일하는 게 신명이 났다. 타고난 손재주에, 일에 대한 성취감이 더해져 비교적 이른 나이에 이정법 씨는 나름대로 착실한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양산빵 생산업체인 ‘맘모스산업’을 창업했던 1960년대는 그의 인생에서 최고의 전성기였다. 그 동안의 현장 경험으로 축적된 노하우와 자본이 집중 투자된 그의 사업은 순풍에 돛을 단 듯 순조로웠다. 부산과 경남권을 거점으로 시장을 확산시켜 한때 종업원수만 450여명을 넘을 정도로 황금기를 구가하기도 했다. 사람들에게 오래토록 ‘맛 좋은 빵을 만드는 회사’로 기억되고 싶었던 그의 꿈도 이루어지는가 싶었다.

하지만 인생의 파란 굴곡은 그에게도 예외가 없었다. 1970년 여름, 유난히 극성을 부렸던 홍수에 그는 그 동안 피와 땀으로 이루어 놓았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게 된다.

붉은 황토물이 빠져나간

공장 안은 흡사 한바탕 전쟁이라고 치르고 난 것처럼 쓸쓸이 되어 있었다. 기계소리가 멎은 공장은 좀체 회생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다시 마음을 추스리기까지 오랜 시일이 걸렸습니다. 돌이켜 생각하면 ‘긴긴 인생에 그만한 좌절도 없어서야...’ 하는 생각이 들지만 한창 젊은 나이로 허탈감이 컸던 게 사실입니다.”

고회를 넘긴 지금껏 현업에 남아있기를 고집하는 이정법 씨의 집념어린 인생을 짐작할만한 대목이다. 하지만 땅은 비운 뒤에 더 굳어지는 법이라고 했던가. 인생의 의미를 돌아보게 해준 그때의 경험이 없었더라면 그는 지금 두 아들과 함께 일귀기는 하루하루의 소중함을 몰랐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심전심, 부친의 뜻 따라 준 등직한 두 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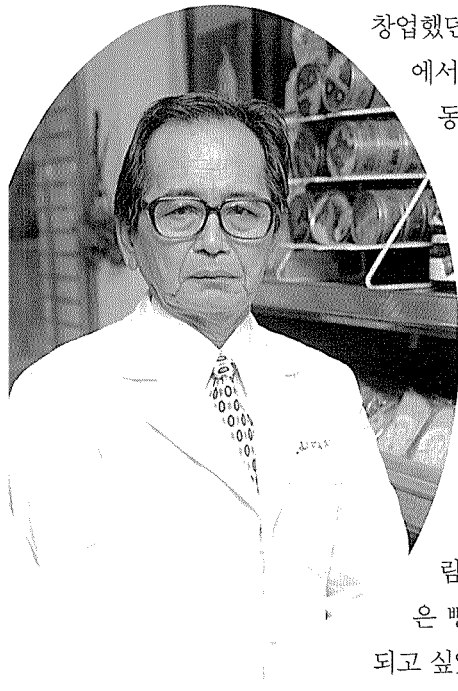
맘모스산업을 정리한 뒤 이정법 씨는 한동안 서울 이대 앞의 그린하우스에서 지배인으로 일하며 절치부심, 재기를 준비한다. 그러기를 10여년. 1987년 그는 재개발 열풍이 한창이던 대구시에 새 터전을 마련하고 에델만의 문을 열었다. 새로운 의욕이 솟았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자신이 모든 것을 직접 관장하기엔 점점 힘이 부쳐움을 절감했다. 그래서 그는 부쩍 늘어난 자신의 흰머리를 보게 된다.

보다못한 큰 아들 용수 씨가 어느날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가업을 잇겠다’며 쇠약해진 아버지에게서 짐 하나를 나누어 들었다. 그렇지 않아도 내심 용규 씨에게 대를 물릴 욕심을 갖고 있던 이정법 씨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든든함을 느꼈다. 혈육이라 해도 나름대로 사회에 기반을 내리고 살던 아들에게 무조건 대를 잇기를 종용할 수 없어 고심하던 때라, 자신의 심경을 짐작하고 선뜻 용단을 내려준 아들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

“물론 저에게도 갈등이 많았습니다. 여태 현업을 고집하시는 이유가 좌절된 꿈에 대한 미련 때문이란 알고있는 저



▲ 지역상권을 대표하는 명점으로 발돋움하는 것이 에델만 베이커리의 당면과제다.



▲ 올해 일흔 두살의 이정법 씨. 그의 집념인생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로써는 언제까지나 아버님의 고충을 외면할 수만은 없었던 거죠. 어쩌면 그게 저의 운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왕 가업을 잇기로 한 이상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을 세심하게 익히고 싶습니다. 제품을 보는 안목 뿐 아니라, 매장 경영에 대한 노하우도 철저히 제 것으로 만들어야죠.”

용규 씨가 에델만으로 첫 출근하던 날, 부친은 ‘항상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 생각하라’는 당부를 잊지 않았다. 지금도 제품을 만드는 틈틈이 매장에 나와 판매동향을 확인하길 게을리하지 않는 용규 씨지만 보다 먼 미래를 지향하기 위해 당장의 수익에만 급급해 하지는 않을 생각이다. 자신에게로 이어진 부친의 꿈은 이제 그의 모든 노력을 경주해 성취해야 할 삶의 목표가 되어 버렸다.

얼마전부터 범어동 에델만 지점을 맡고 있는 동생 용수 씨의 합류도 어찌보면 이미 예견된 일이었는지 모른다. 그 역시 십여년간 몸담아왔던 군(軍)에서 예편, 가업에 동참하기까지 마음고생이 많았다.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장교로 임관해 군에서 잔뼈가 굵은 용수 씨는 그 사이 대위로 진급해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하지만 언제인가부터 아버지와 형의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편치 않음을 느꼈다. 에델만의 도약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부친의 야원 어깨를 볼 때마다 아무런 힘도 되어주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가 원망스러웠다. 더욱이 지점 개설을 염두에 두고 있는 아버지와 형에게는 누군가의 조력이 절실한 시점이었다. 고민 끝에 그는 아버지

의 어깨에서 나머지 한 짐을 거두기로 작정했다.

“미력하지만 아버님께 힘을 보태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아버님의 오랜 꿈이 내일 당장 실현되지는 않겠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더 필요한 건지도 모르구요.”

둘째 용수 씨의 가세로 한결 힘을 얻은 에델만은 요즘 제2의 도약을 위한 몇가지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려놓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에델만의 고유한 이미지를 확고히 다지는 것. 50년 베테랑인 부친과 용규 씨 덕분에



▲ 두 아들 용규(왼쪽), 용수 씨의 가세로 에델만은 제2의 도약을 위한 모든 준비를 끝냈다.

에 제품에 대한 평판이야 소문이 자자하지만, 에델만의 상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점 개설이 필수적이라는 결론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향후 지역 상권을 대표하는 명점(名店)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당분간 소수정예화된 지점체제로 내실을 기하지는 게 삼부자의 공통된 생각이기도 하다. 무리한 사업확장의 위험성을 줄이고 차분히 내일을 준비한다는 계산인 것이다.

경험과 패기, 최고의 경쟁력으로 승화

요즘 에델만은 일본어에 능통한 부친 이정법 씨의 주도로 일본 제과서적을 탐독하며 화과자와 생과자 등의 개발에도 힘을 쏟고 있다. 개인 점포의 여건상 신제품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것 또한 에델만 베이커리만이 갖춘 최고의 경쟁력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장점들이 마케팅으로 직결될 때 에델만의 입지는 더욱 탄탄해질 것이다. 이래저래 요즘 에델만의 든든한 기둥 용규·용수 형제의 머릿속은 미래에 대한 계획으로 분주하다.

이런 두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이정법 씨도 요즘들어 부쩍 일에 신명이 난다. 아득하게 느껴졌던 평생의 꿈이 실현될 그날이 성큼 눈앞에 다가와 있는 듯 하다. 든든한 두 아들 용규·용수 씨와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그는 확신한다.

가끔 아들들과 마주 앉게되는 술자리에서 이정법 씨는 늘 자신의 직업에 긍지를 갖고 살아주기를 신신당부한다. 고회를 넘긴 지금까지도 자신이 현장에 남기를 고집하는 이유가 단지 좌절된 젊은날의 꿈에 대한 회한만은 아니듯, 두 아들도 자신의 직업 속에서 인생의 보람을 느끼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결코 쉬어갈 수 없는 긴긴 인생의 어느 고비쯤에선가 자신이 문득 그런 깨달음을 얻었던 것처럼.

마주 잡은 손을 통해 전해지는 두 아들의 따스한 체온에서 벌써 그는 자신의 오랜 숙원을 실현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

〈글/이종원〉



▲ 고회를 넘긴 이정법 씨는 지금도 공장에서 직접 제품을 만들어 기술을 지도한다.